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체계적 지원 나선다

전주시, 저소득 1인 가구 전수조사 통해 2062명 발굴… 고독사 예방 등 위해 전담관리 체계 구축

전주시가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2000여 사회적고립 위험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1인 가구는 지난 2017년 전체인구 대비 28%인 7만3738명에서 지난 2021년 전체인구의 35.3%인 9만9476명으로 2만5738명(6.3%p)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1만84명에서 1만7039명으로 6955명이나 늘었다.

특히 시가 저소득 취약가구를 중점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한 65세 미만 저소득 1인 가구 7719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가구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2062명의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발굴했다.

유형별로는 고위험군 814명, 중위험군 541명, 저위험군 707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동별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매칭하는 등 주 2회 이상의 주기적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동협의체 등 자생단체와 연계해 월1~2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등 '혼자사는 저소득 가구 방문보호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과거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의 예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노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65세 미만 고독사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선정돼 현재 65세 미만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고독사를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관계망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왔다.

이와 함께 저소득 1인가구 중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사회적 고립의 상태가 장기화 되는 고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가구를 유형별로 분류해 중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고립가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고독사 초기대응 매뉴얼을 만든 전문강사 등을 초청해 2차례에 걸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고립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보호하는 유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월 민관합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간담회도 열고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사회적으로 고립가구는 늘어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가 많아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대면이 익숙한 사회에 행정도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이며, 적극적인 직무역량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고립가구가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7월 21일~8월 15일 전주대 · 전주월드컵광장서

전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주대학교와 전주월드컵광장 등 2곳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시원하게 놀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장'은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지만, 이듬해 코로나19로 중단된지 3년 만에 재개장하게 됐다.

여름철 물놀이장은 대규모 물놀이 시설 조성이 가능한 전주월드컵광장(덕진권역)과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캠퍼스를 무상 개방한 전주대학교 내 창조관(완산권역)에서 동시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일이다. 시는 여름철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1일 2회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점에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맞이하는 첫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재미와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질관리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이용객 인파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063-120, 063-222-1000) 또는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2346, 287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살균·소독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살균·소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만5000여 개에 대한 살균·소독을 전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약품과 분무기를 수거업체에 지원해 수거 시마다 살균·소독을 진행하는 한편, 원룸과 상가 밀집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에는 전용 세척차량을 별도 운행해 세척을 강화키로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개최

전주시는 오는 24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나눔과 소통의 생활문화마당이자 벼룩시장과 프리마켓, 체험장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주시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는 '돌아온 추억의 놀이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놀거리, 살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공예품과 추억의 문방구 등 20팀의 판매장터, 12가지의 체험장터, 4가지의 놀이장터로 장터가 구성된다. 또, 바이올린, 어린이 방송댄스, 비눗방울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 빛낸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시상

제65회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전주시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최찬욱 전주시민대상 수상자회 회장, 전주시민대상 수상자와 모범시민상 수상자,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8명과 모범시민상 수상자 5명 등 전주시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13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전주시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인 영예의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대상 황오숙 님(54, 여) △교육학술대상 오용기 님(73, 남) △문화예술대상 김완순 님(71, 여) △산업·기술대상 임동욱 님(56, 남) △사회봉사대상 윤국춘 님(55, 남) △체육대상 박종윤 님(73, 남) △환경대상 김방섭 님(80, 남) △복지대상 전석진 님(65, 남) 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을 보여온 시민에게 수여되는 모범시민상은 △박종화 님(66, 남) △범용임 님(71, 여) △안혜숙 님(46, 여) △이진호 님(51, 남) △최명화 님(50, 여)에게 각각 수여됐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제65회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과 함께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을 축하하게 돼 기쁘다"면서 "전주시민대상은 우리 지역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자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으로, 수상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는 등 수상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28~29일 XR·메타버스 세미나 개최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디지털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북VRAR제작거점센터(덕진구 백제대로 816)에서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미디어의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의 주요 사례를 접할 수 있는 'XR·메타버스 기술융합 세미나'를 개최한다.

메타버스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등 실감미디어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유사하게 조성된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은 'VR·AR'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미래 신산업의 주요 기술로 언급되고 있다.

먼저 'XR·메타버스 유망 비즈니스 트렌드'를 주제로 열리는 1일차 세미나에서는 권남혁 인터렉트 대표와 정철용 엔토닉 대표, 최백준 틸론 대표가 각각 △VR 소방관 위험예지 훈련 시스템 △미디어파사드 등 '체감형 전통문화 콘텐츠 사례' △메타버스 시장 경제 도입을 담은 '메타커머스, 나의 아바타로 인해 현실로 환원된 가상세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등으로 창출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발표도 준비됐다.

주선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응을 담은 '디지털기반 K-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이어 박외진 아크릴 대표가 빅데이터 등으로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 간 융합을 다룬 '웰케어: 데이터·인공지능 기술기반 본격 건강관리산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2일차 세미나에서는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을 주제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이수령 아트코리아랩 본부장) △'세계관을 담은 신비로운 미디어아트: 야간 콘텐츠 중심으로'(홍성대 서경대 미디어아트연구소 교수) △'AI(챗GPT)를 활용한 서비스 기획'(김형택 디지털이니셔티브그룹 대표)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세미나 참가는 온라인(www.onoffmix.com/event/277863)을 통해 선착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063-281-4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